

사·부·대·중

큰 스님 신드롬



원담스님 의령 유학사

스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가 큰 스님(?) 행세를 하면서 신도들을 놀라하는 것이지만 그 추세가 심각해져 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저마다 독특한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이 주위엔 오지 않더라도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신봉자재한 큰 스님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큰 스님 신드롬'에 걸린 소수의 불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다수의 불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신봉자재한 큰 스님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신봉자를 잘하는 스님이라면 무조건 큰 스님(?) 줌으로 존경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한 스님들은 큰 스님으로 대접받고 점차 친경하기 어려운 유명 인사가 되어간다. 그런 절에는 불사도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러한 큰 스님을 친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 일도, 다가올 일도 꼭집게처럼 정확히 알아맞힌다는 소문에 타종교를 믿는 정미인들까지 찾아간다는 풍문이다.

인터넷에서도 그 큰 스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어느 신도는 한 스님의 홈페이지에 우연히 들어가 대화방에서 불교 상담으로 그 스님을 알게 됐고 상담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행되었으나 결국은 오래가지 않아 그 신도는 불쾌했던 사연을 나에게 하소연해온 일이 있다. 물론 큰 스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가 큰 스님(?) 행세를 하면서 신도들을 놀라하는 것이지만 그 추세가 심각해져 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진리 찾는길 어떤 종교든 관계없다”

종교, 神性시대에서 個性시대로

종교가 흔들리고 있다. 사찰·교회·성당 등과 같은 전통 종교의 요람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곳을 찾는 종교인 수는 줄고 있다.

서구에서는 오랜 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독일이나 칼뱅이 장로 교회 운동을 시작한 스위스의 모든 교회에서, 신도들이 실종된 지 오래다. 하늘을 찌르는 십자가는 이제 관광객을 위한 명소일 뿐이다.

가톨릭 신학자 쾨링(H. Küng)은 “누가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교황에게서 신성함을 찾겠는가? 차라리 모짜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에 귀를 기울이라. 거기서 진정한 초월의 경험을 기대하는 게 낫다”고 빈정대고 있다.

70년대부터 상향 곡선을 그려왔던 국내 종교 관련 통계 역시 80년대 후반부터 하향 곡선을 그기 시작했다. 불교의 경우 70~80년대에 대중화를 목표로 한 도심 포교당들이 확산됐다. 재가불자 중심의 교양대학이 여기 저기 세워졌다. 부처님 오신날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또 세계불교대회 개최할 만큼 커졌다. 기독교 교세 역시 이 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뉴욕타임스〉(1983년 3월)는 “한국의 기독교는 지난 10년 동안 신도가 배로 증가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그 불세가 꺾여가기 시작한 것이다. 사찰·교회·성당을 찾는 젊은이나 종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종교인조차 발걸음이 뜸해졌다. 종교인의 연령도 고령화 됐다.

사찰·교회·성당 찾는 젊은이 줄고있다

■ 보이지 않는 종교 사찰·교회·성당을 외면한 종교인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뉴욕타임스〉(94년 11월)지에 따르면, 이들은 점심 시간에 짬을 내서 경전이나 성경을 읽고, 인터넷에서 온라인 종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또 이들의 관심으로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달라이 라마의 저술이 올라가고, 레코드 가게에서 명상용 음악 CD가 날개돋친 듯 팔린다. 할리우드의 영화대본에 종교 관련 이야기들이 끼어 들고, 종교 성지를 경유하는 패키지 관광 상품이 특수수련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통적인 신행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으로 신행을 끌어들이는 것을 반영한다.

박규태(서울대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 박사는 “이 같은 현상은 전통적인 신행 요람이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밀려나고, 세속주의의 굴레에 밀리고, 또 교리에 대한 종교인들의 깊은 이해를 아



◇ 불교와 도교가 뒤섞인 중국의 신종교 파룬궁 신도들이 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99년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실시했다.

우르지 못한 탓”이라고 풀이했다. 요람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담아낼 수 없었던 그들은 종래의 신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혼자서만 믿는 탈종교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학자들은 이를 정의해 ‘보이지 않는 종교의 시대’라고 부른다. 사찰이나 교회마다 등록은 안 하고 그냥 그날의 설법(교)에 따라 철새 같이 떠도는 종교인이 늘어난다. 전통의 신행 요람은 가끔 이용자는 새로운 개인 중심적 신행 패턴을 보이는 이들은 모두 종교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투명 인간이다.

입맛따라 식단짜듯 ‘자기만의 종교’ 연출

■ 카페테리아식 종교 김중서(서울대 종교학) 교수는 사찰이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종교인의 속성을 “진정한 영적 진리를 자신이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불교든 도교든 또는 유교이든 무속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종교인은 정해진 식단이 없거나 짜여진 사람들이 아니다. 입맛에 따라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스스로 골라서 식단을 짜 먹는다. 마치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다양한 종교에서 자신이 찾는 종교적 진리를 수행을 하나씩 골라낸다. ‘카페테리아식 종교’인

셈이다. 여기에선 선택뿐만 아니라 조리법 자체가 자유자재다.

다시 말해 무슨 종교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종교로부터”라는 말조차도 무의미하다. 점점 더 다양한 먹거리가 뒤죽박죽 되어 자기 혼자만의 개인 종교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94년 11월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헨리 뉴진트(50·美)가 자신의 집에 구민 제단을 주목해야 한다. 천사 석고상과 청동부처상에 모형 피라미드, 수정 구슬, 기도용 양초, 성수를 담은 병 그리고 인디언이 쓰는 광주리와 유대교 기도문에 고목나무가 있는 성지(聖地)의 사진... 이 종교 저 종교에서 진리를 새롭게 구하다 보니 이에 기성 종교를 넘어서 다른 것에까지 눈을 돌린 것이다. ‘자기만의 종교’를 찾아 나서서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와 같은 ‘카페테리아식 종교 패턴’이 우리 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자대비하신 하남님’을 영송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보살’을 봉안한 그런 제단과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구원’ 주장 급증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

■ 증가하는 신종교 전통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될 때, 신

종교들이 더욱 증가한다. 97년 〈한국신종교실태보고서〉를 발간한 유병덕(원광대 명예교수) 박사는 당시 350여 개의 신종교의 수는 4년이 지난 지금 7~10%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종교에서의 신행은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게 종교학자들의 지적이다. 2년도 채 못되어 결별하는 수가 태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종교들이 매스컴이나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우리가 실제 느끼게 되는 이른바 ‘체감 교세’는 엄청난 셈이다. 크리슈나무르티와 라즈니쉬 등의 정신 철학과 수행은 우리 나라의 대형 서점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어떤 곳은 아예 독립적인 서가를 설치할 정도다. 그저 읽혀지기만 한다면 그렇게 꾸준히 많이 팔릴 수는 없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신종교 현상의 근원은 뉴에이지(New Age)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으며, 종교 전통을 초월하는 보편적 에너지, 즉 마나(man·초자연적 힘), 성령(holy spirit), 기(氣) 등에 주목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까지 인기 있었던 마인드 컨트롤(Mind Control) 역시 뉴에이지 신행 형태를 답습한 것이다. 이까지 것들이 무슨 종교인가? 반문하는 수도 있다. 맞다. 전통적 교회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결코 종교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의 마음에 접근해 새로운 구원의 형식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변화 인정하고 대응 인간의 행복 살필때

■ 기성종교의 과제 보이지 않는 종교는 이미 열려 버린 종교다. 빛장이 풀렸으니 다시 닫기는 어렵다. 불에 박힌 신행이 싫어 요람을 등진 종교인들에게 불교 등 기성 종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박규태 박사는 “신성(神性)이 사라진 게 아니다. 단지 종교인들이 과거의 신(神)보다는 인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두 대상에 대한 관념적 우선 순위만으로 기성 종교의 패배를 숙단하지 말라”고 말한다. 패배보다는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박사는 “기성종교는 불교의 ‘자기를 비우는 자제’나 기독교의 ‘키노시스’(신이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세상에 내려왔다는 뜻)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는 영원한 안식을 찾는 인간의 욕구에서 생겨났지만, 기성종교는 이 욕구를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한뼘쯤 반추해보고, 그들에게 다가갈 ‘행복 조건’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a.com)

목탁소리

불교없는 인사동 축제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전통과 문화의 거리’ 서울 인사동은 불교계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다. 인사동(仁寺洞)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대규모 가람이었던 원각사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 더욱이 우리 전통문화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한다면 인사동은 불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다.

그런 인사동에서 14~15일 이틀간 ‘인사동문화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전통과 문화의 거리’라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최근 거리단장을 끝낸 새로운 모습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깊다. 더욱이 서울시가 인사동을 세계적인 문화특구로 가꾸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때라서 많은 이들의 눈이 이곳에 쏠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인사동 축제에서 불교 관련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무용에 전통혼례, 판소리, 대중놀이, 창작극 등의 20여가지 각종 공연과 궁중후회놀이, 유리공예, 한국전

통 시골떡 재현 등 10여 가지 거리 이벤트 역시 불교와는 관련없는 것들 뿐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인사전문문화재단 김병욱 사무국장은 “예년에 서 승무나 법화 등의 공연과 불교용품 홍보 등의 거리 이벤트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불교계나 인근 조계사에서조차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29일 열리는 서울시 시민의 날에 참전, 발우공양, 바리춤, 연등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계사는 인사동 코앞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축제가 언제 열리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불교계가 인사동에 대해 그만큼 무감각한 것이다.

하루 10만여명의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찾는 인사동. ‘포교의 황금어장’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렇게 중요한 곳임에도 정작 불교계는 인사동을 건전지 불 구경하듯 한다. 더욱이 한국 사찰을 대표하는 조계사마저 지척에 있으면서도 인사동 포교를 포기한다면 불교의 미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길월사 영탑(靈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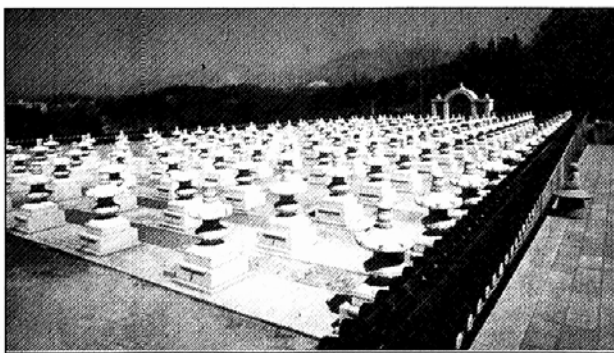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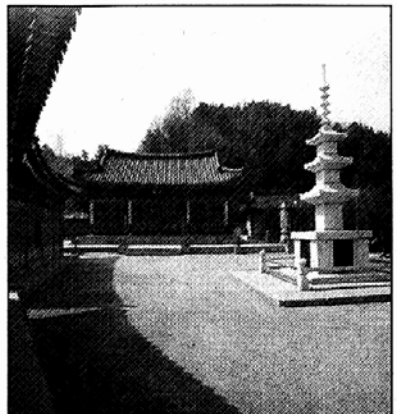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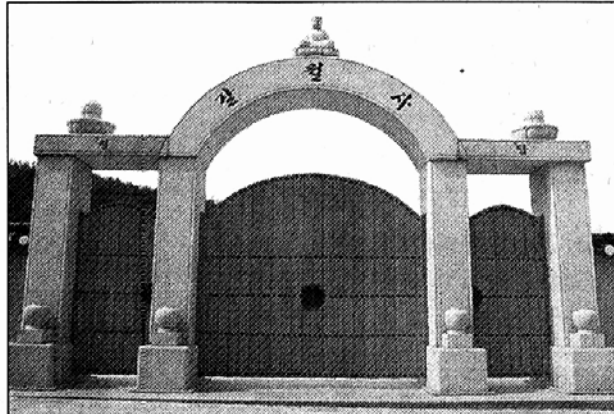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호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감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다하면 색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 ▶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